Entertainment p/18
가요계도 세월호 추모 물결

Sports p/21
식어버린 넥센의 '방망이'

# 신세계라고? 충성!

## '신문 강탈 사건' 수수방관 남대문경찰서장 등 피소

메트로 "특수절도 현행범 현장 방면은 직무유기"

“돈 받았으면 나도 죽겠다”

한국야쿠르트, 가정있는 직장
“경단여성의 파라다이스”

주요 기사 및 전체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 일본인 57% "전쟁 사죄·보상 충분"

일본인 57%가 과거의 전쟁에 대해 충분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후 70주년을 맞아 아사히신문이 3~4월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전쟁 등으로 피해를 준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로 집계됐다. '아직 충분치 않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교육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과거 전쟁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고 답한 일본인은 13%에 그쳤다.

아사히는 최근 일본과 같은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에서 지난달 현지 언론에 의뢰해 비슷한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진행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은 73%가 '피해국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충분했다'고 답했다. 나치 시대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독일인 응답자는 48%였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46%)는 응답보다 많았다.

양국에서 모두 사죄와 보상은 충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과거 자국의 잘못에 대한 교육 정도와 지속적인 사죄의 필요성, 주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송병형기자 bhsong@

# 中, 日에 'AIIB 부총재 카드' 제안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이 참여하는 대가로 '일본인 부총재' 카드를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22일 진리췬 AIIB 임시 사무국장이 베이징에서 일본인인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만날 즈음 중국이 일본에 '창설 멤버로 참여할 경우 수석 부총재 자리와 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비밀리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진 사무국장은 AIIB 초대 총재로 유력시되고 있다. 진 사무국장은 당시 나카오 총재에게 "역시 일본이 AIIB에 참가하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내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일본의 동참을 적극 희망한 것은 우선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에 밝은 일본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진 사무국장은 ADB 부총재 재직 시절 일본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AIIB 참가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6월 말까지 AIIB의 창립 협정을 지켜보고 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정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까지 참가를 결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병형기자

# "센카쿠 열도, 美·日 공동방어"

##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포함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섬 방어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일 간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미다.

14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달 말 합의가 예상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도서 방위를 위한 협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양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양국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협력지침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이 문구 명기를 요구했다는 관언이다.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안보법제 정비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정한 조문 작성 작업을 오는 27일까지 마무리한 뒤 5월1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 "나는 마녀사냥 당했다"

## 세월호 1주년 홍가혜의 자기 변론

지난해 세월호 침시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짜 잠수부' 논란의 주인공 홍가혜씨가 세월호 1주년을 맞이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씨는 14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1년, 국가 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언론의 무자비적인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인해 해경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을 직접 변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홍씨는 개인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취소했다.

홍씨는 대신 자료집에서 "인터뷰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터뷰가 보도된 후 강력한 의문을 받은 구조 당국이 인터뷰를 마치고 2시간만에 민간잠수사들에게 사고 해역으로 가는 배를 지원해주고 인터뷰 발언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가리기 전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홍가혜씨 /뉴시스

홍씨는 민간 잠수사 사칭에 대한 혐의도 반박했다. 그는 "해담조 민간 잠수사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리지 않고 기준 자격 등을 명시하지 않은채 모집령을 내렸다"며 "민간인으로서 다이버이면 민간잠수사로 통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올해로 6년간의 잠수 경력과 40여차례도 넘는 다이빙 경험과 시어 확보가 어려운 나이트 다이빙으로 수심 30m는 기본인 다이빙 경험자"라고 말했다.

홍 씨는 '티아라 사촌언니'와 기자 사칭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차례 화영의 사촌 언니가 아니라고 트위터로 밝혔지만 연예매체들이 자신을 화영의 사촌 언니라고 계속 보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1A4 소속사 측은 "제칸부에 홍가혜씨는 연예부 기자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B1A4 측 지인과 함께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 추궁이 권력 세력 쪽으로 향하자 한 사람을 지목해 돌을 던지는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내 이름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보도들과 누리꾼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목을 매는 등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김서연기자 sdeun217@metroseoul.co.kr

## 홍문종 "성완종, 급조해서 한 말"

지난 대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14일 "앞으로 이렇게 깨끗한 선거가 또 다시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깨끗한 선거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홍 의원은 "녹취록을 들어봤지만 상당히 자신 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급조해서 막 말씀을 하시려니까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재 범죄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성 전 회장의 머리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장부를 보고 날짜나 액수를 기억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겠지만 실제 장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 튀니지 있다던 리비아 대사, 10여일전 귀임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이 지난 12일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을 당시 정부가 인접국인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던 이종국 리비아 대사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주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일인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이 대사의 소재에 대해 "지금 (인사발령으로) 교대하는 상황인데 튀니스(튀니지 수도)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리비아 정정이 불안해지자 지난해 7월 현지 주재 공관원 일부를 튀니지로 임시 철수시켜 트리폴리에 있는 공관원과 2주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해왔다.

이 같은 교대근무에 따라 이 대사가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당시 튀니스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하는 것으로 이해됐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일 이미 국내로 귀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대사가 튀니지에 머물고 있다고 외교부가 브리핑을 한 셈이다. 이는 외교부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또 이 대사는 귀국후 절차에 따라 귀국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고 수습을 책임졌던 주요 담국자는 이 대사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13일에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연합뉴스

이 대사의 후임은 13일 현지에 부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이 대사의 소재도 파악 못 하는 등 사고수습에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 성완종 목숨 던진 증언…이완구도 목숨 걸어

## "어떠한 증거라도 나온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야당에서는 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나랠지 못했을 뿐 '사퇴해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라도 받겠지만 사퇴는 불가라고 버티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을 내걸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음으로 담보한 증언에 자신도 목숨으로 맞섰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2013년 재보선 때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보도가 나온 날의 상황이다.

14일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둘째 날 국회에 나와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죽음은 앞두신 분(성 전 회장)이 한 얘기는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진다"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이현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할 때는 "저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며 "제가 만약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온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 어떠한 증거라도 돈에 입각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반복되는 사퇴 요구에 "(특검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한 분(성 전 회장)이 근거 없이 한 말을 듣고 막중한 자리를 사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 밖에서도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선거유세차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묶어 "현직 총리와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리직 사퇴나 직무정지 등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문제(직무정지)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이 총리가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완전 정리를 못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또 "사퇴 요구란 얘기까지 명시적으로 다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신 유 원내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굳은 표정의 이완구 총리. /뉴시스

총리 집무실 앞의 '부정부패 척결 다짐 항아리' 성완종 리스트 와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 진실공방이 이어진 1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집무실 입구에 부정부패 척결 다짐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물은 정홍원 총리 재임기간인 2014년 6월 부정부패 척결 실천 국무총리실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 방송사 횡포 방지 'JYJ법' 발의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JYJ법(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발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 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나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송병형기자

## 박 대통령 16일 출국 재논란… "남의 집 불구경"

이른바 '성완종 파문'으로 나라 안이 시끄러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남미 4개국 순방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선 10일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9박12일 일정으로16일 오후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당일 출국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에 해외순방 출국을 놓고 유가족과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지난 9일 자살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 거명되면서 다시 한 번 박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입방아에 올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에서 "전대 미문의 권력 비리게이트가 터졌는데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해외순방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측근 비리로 나라에 난리가 난 때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박 대통령께 순방 일정 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청와대와 정부 여권 핵심 측근들이 이른바 '성완종 파문'에 연루됐다면서 순방연기를 주장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외적으로 약속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연기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며 예정대로 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주 수석은 이어 "(남미 4개국 순방은 이미) 약속한 것이고 시장개척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기업인 120여명과 함께 (시장을) 창출해야 하고 동포사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 北 리설주, 4개월만에 모습 드러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가 4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1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부인 리설주와 함께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만경대상 체육대회의 남자축구 경기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전 노동당 총비서의 3주기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김 제1비서의 대외 활동 수행은 동생인 김여정이 맡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실세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다오기도 했다.

리설주가 관람한 경기는 선봉팀과 횃불팀 간 경기로 선봉팀이 횃불팀에 3대1로 승리했다. 선봉팀은 노농적위군 소속으로 2011년 창단됐고, 횃불팀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으로 지난 2013년 5월 창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비서는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고 군중의 환호에 답례했다.

/정윤아기자

# Korean Classical Music, No Longer Old Fashioned

Old fashioned and boring Korean Classical Music is transforming into a sophisticated and classy music through Youth Songs and Music. Many skilled and talented Korean Classical musicians are going to join the "Youth Songs and Music." "Youth Songs and Music" is a program by Seoul City Hall Youth Classical Group to discover young and talented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under 30 years old. This group was put together in year 2013 and this program will be hosted on the 17th of this month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M Theater. A new style of dynamic performance will be shown by nine young conductors, composers and instrumentalists who were chosen last February at the contest. These people have proven themselves to be outstanding and creative among the 70 teams that participated. The grandson of the Dae-Geum master Seo Yong Sok, Ahaeng player Seo SuJin, the nephew of the human cultural asset and Pansori master Kim Dong Jun will perform "Conversation between Ajaeng and Sori." A brisk and lively folk tune. A visually impaired Danso player, Park Jisun will perform Danso solo "Chusan." Pipe plater Kim Tae Hyung and geomungo player Lee Min Young, who have won the 1st prize at Onnara Korean Classical Music Contest will perform "Changbu Taryung" and Moo young Tap" "Baek Dorah of Gold Mountain" by Kim Ha Hyun will perform with a modernized instrument Ok Ryu Geum. "Shan Moduem of Yoohee group Taseo is also on the performance list. "Mongyudo Wondo" composed by Lee Go-eun will be conducted by Yu Yong Sung.

/외고피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용관) 강사

## 국악,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국악이 '청춘가악'을 통해 세련된 음악으로 탈바꿈한다.

'청춘가악'에서는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춘가악'은 30세 이하의 실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 프로그램이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린다.

지난 2월 공모에서 선발된 지휘자와 작곡가, 연주자 등 젊은 국악인 9명은 이 무대에서 파격적인 연주와 퍼포먼스로 새로운 국악을 선보인다. 70여 팀의 지원자 가운데 실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은 이들이다.

대금명인 서용석의 손자인 아쟁 연주자 서수진, 판소리 고법 인간문화재 김동준의 조카인 소리꾼 신지원이 '아쟁과 소리의 대화–육자배기'를 들려준다. 시각장애인 단소 연주자 박지선은 단소산조 협주곡 '추산'을 연주한다.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피리 연주자 김태형과 거문고 연주자 이민영은 피리협주곡 '창부타령', 거문고 협주곡 '무영탑'을 선보인다. 현 개량악기 옥류금으로 듣는 김하현의 '황금산의 백도라지', 연희그룹 '타고'의 '신모듬'도 관객을 기다린다. 작곡가 이고운의 창작 관현악곡 '몽유도원도'는 유용성의 지휘로 연주된다.

# 1%대 초저금리 시대, '빚 내서 집 사도 되나'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총 27만 53건이 거래됐고 지난 2014년 1분기보다 18.3% 증가했다. 전세난과 저금리에 동요한 실수요자들이 주택 거래에 나선 결과다.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5% 가까이 더 오르고, 도심 주요 지역에서 저렴한 전셋집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넘어섰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큰 깡통전세도 늘어나고 있다. 기준금리는 1.75%까지 내리면서 사상 최저금리를 경신 중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대에 진입했다. 2012년 이후 2년여 만에 대출금리가 절반 가까이 내렸고 LTV와 DTI 규제는 완화돼 자금력이 약한 30~40대 젊은 무주택 세대주들도 주택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졌다.

2년마다 전세 보증금 인상 요구와 전셋집 옮기기에 지친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만 이용해 도심의 소형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집을 사도 좋다고 본다. 완전 전세 물건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가 2년마다 전셋집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추가 비용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도심 소형 주택의 가격은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고 실수요 중심의 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가격 하락 변동성은 다른 투자 상품보다 낮다.

대출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리 조건과 상환 방식, 대출 자격과 대출 가능금액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된다. 대상 조건은 까다롭지만 금리가 낮고 장기간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금리 상품을 먼저 살펴보되 대부분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야 하므로 현재 소비 여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장 원금을 같이 갚을 여유가 없지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 초반에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품 중에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적절히 선택해도 된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최근의 거래량 급증에도 상대적으로 더딘 가격 회복세는 취약해진 주택의 투자성을 한 눈에 보여준다. 전세난에 내몰린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 시장이 재편되면서 연립, 다가구 등 저가 소형 주택의 거래가 많이 늘었고 전반적인 집값 회복력은 더딜 수 있다. 급증하고 있는 새아파트 공급량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반기까지 밀어내기식 분양 공급이 지속된다면 3년 후 입주가 급증하는 지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내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내년 이후부터는 미국발 금리 인상 변수가 작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2~3년 안에 금리가 상당 수준 오르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안전하게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당장 대출을 무리해서 받더라도 1년 이내에 부분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저성장 프레임과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효율적인 대출 활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하되 시장 변화에 따라 환금성이 좋은 상품을 선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성기 그리기' 논란에 가려진 민낯

기자 수첩
현미란
<사회부 기자>

"자신의 생식기를 그려오라. 거울이나 성기모형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 H대학교 교양학부의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로 이같은 요구를 했다. 이 과제를 받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일부 학생들은 당황했고 그 감정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토로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과제를 거부하고 싶다는 것.

일부 게시판에서는 갑론을박까지 오고갔다. 대부분 과제를 내준 교수를 궁지로 몰았고 일부는 학교 망신이라며 학생을 비난했다.

내용을 접한 학교 내 상담센터는 "해당 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교수는 자기 몸의 소중함과 성적 자기 결정권, 주체성 등을 논하기 위한 과제라고 항변했다. 내 몸에 대해 알아야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였다.

유럽 교육권에선 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종종 이 같은 과제를 준다. 우리나라도 초기 단계지만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단우의 성폭력상담소에선 만든 워크북 '명랑 성생활'에서 한편에 '성기 그려보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성기도 다른 신체부위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언급한 것처럼 성적 주체성, 자아 알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부족이었다.

강의실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의 함의(含意)를 파악할 정도로 교수와 학생 간 신뢰도가 높았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해당 과제가 비단 이 학교에서만 출제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교수와 학생, 학교 모두 자신에 있어 미흡했다. 교수는 과제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SNS에 맥락 없는 글을 올린 학생들 역시 성숙하지 못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말에 집중하면서 미처 교수의 의중을 살피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매개되고 이상한 과제를 낸 교수로 낙인 찍혔다. 성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공론장에 무언가 올라야 한다면 그건 성보다 소통이 우선이다.

**인사**

■ 교육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 대전시 부교육감 이준훈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인사교류(공정거래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홍현주
■ 환경부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김종률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신동인 ▲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권균심 ▲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김현부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영단 ▲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성수호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진서

**부고**

▲강의혁 전 전주지검장(씨 별세, 최구연 현대백화점 현대될라씨이터 회장(씨 부친상, 이형규(한씨드 정우부지사)씨 장부상 =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 02-3010-2235
▲김홍재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씨 별세, 문경록씨 남편상, 대윤(한전KPS 사원) 지현(JP모건 차장) 소현(ZARA 매우점 사원)씨 부친상, 원태준(태광에셋주권 지점)씨 빙부상 = 14일 오전 3시 5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 02-3410-6902

# 잇단 금리인하·NIM 하락… 은행들 속탄다

##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도 수익 회복 갈길 멀어

올 1분기 은행산업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에 따른 정책부담과 순이자마진(NIM) 하락세 등 악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리인하 NIM하락세에 '먹구름'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난 1분기 은행업종의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1조3000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실적의 걸림돌이 됐던 대규모 대손충당금 악재가 없었던데다 주택거래 호조로 인한 대출 성장과 일부 은행의 법인세 환급, 소송 승소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단 NIM이 전분기 대비 약 6~7bp 급락하고 2분기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안심대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회복하기까지는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1분기 추정 순이익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등 표면적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KB금융 법인세 환급과 삼성자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특별이익 등의 일회성 요인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한 경상 순익은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손충당금 하향안정화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NIM이 추가 급락하면서 경상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 대출성장률은 1.8%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은행 평균 NIM은 전분기대비 약 6~7bp 추가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경상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이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경기활성화 정책의 출발점이 유동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가계부채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시중銀 실적 기대치 부합 전망

한편 종목별로는 대부분 은행의 실적이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박 연구원은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신한금융지주는 기저효과와 일회성 이익 제외시 가장 높은 이익안정성을 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을 선호주로 제시하며 "올해 은행주 내 NIM 관리가 가장 양호하고 이자이익도 가장 견조할 전망"이라면서 "양호한 마진관리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경남기업과 동부메탈, 우양에이치씨 관련 추가 충당금 500억원이 예상된다"면서도 "전분기 기존여신에 대한 보수적 충당금적립과 계절적요인에 따라 기저효과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1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삼성자 위약금(영업외이익 1,300억원)이 우리은행 실적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나금융과 KB금융 역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1분기 그룹 지배주주 순익은 3158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며 "일회성 손실요인보다 이익요인이 크고 대손비용과 비이자이익 부문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원은 "KB금융의 경우 1분기 그룹 지배주주순익 5471억원으로 세금환급금 1800억원이 반영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8.1%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이내 LIG손보 19.5%지분 인수 마무리 이후 추가 지분확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LIG손보의 그룹 이익기여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아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서민금융지원 강화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임종룡 금융위장 취임 한달 성적표는

## 현장소통·규제개혁 등 긍정적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오는 16일 취임 한달을 맞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꽂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편이다.

그는 특히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14회에 달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달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변동금리로 이자를 상환하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했다.

다만 집이 있고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아직 놓여진 숙제도 많다. 가계부채와 핀테크, 기술금융,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부터 지속가능한 동력추진까지 전방위적 금융 개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아란기자

##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솔솔'

### 전문가들 "올 여름께 예상"

"'계산'이라는 표현을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가 길어지며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점사항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1.75%)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 거시경제흐름을 살핀 뒤 상하방 리스크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업계와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따르면 다수가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기는 올 여름께로 내다봤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린 점을 비롯해 내·외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국면이라는 점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월 말 경제 주간 평가에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재고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최근 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선행지표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는 감지된다"며 "낮은 수준의 금리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 추가하락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성장률은 2.9%로 예상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산업생산 동향에서 나타날 성장률은 2%대로, 3개월 뒤 한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경제연구원은 "한은 금통위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4%에서 3.1%로,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한데서 알수 있듯 부진한 경기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 역할이 확대되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지연되면 연내 두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1.75% 기준 금리가 연내 동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착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0년 9월 29일 창간 / 등록번호 [illegible]

# 건설업계, 해외부진 털고 주택사업 '속도'

## 자체사업 강화에 재건축·재개발 수주 확대

해외시장에서 수익 악화로 고전한 건설업계가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주택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GS건설은 총 8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수주액만 2조4000억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2조225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GS건설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부문 주택영업담당 산하에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시공이익만 추구하는 도급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GS건설 주택자체사업팀을 맡게 된 김영욱 상무는 "주택사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엔진 확보와 자체·도급·도시정비 사업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주택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건설도 1분기 동안 5곳에서 1조3695억원의 정비사업을 따며 3년 연속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 공격적인 수주전에 대비해 부산·대구에 이어 호남과 강남사업소를 잇달아 개소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GS건설이 지난해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현장 전경. /GS건설 제공

이밖에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SK건설 등도 1000억~5000억원 안팎의 정비사업 수주액을 기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든 자체사업을 하든 분양에 집중하는 게 해외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사업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분양시장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 2005~2007년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도 건설사들이 무턱대고 주택사업 비중을 늘이다가 낭패를 겪었다"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지난해부터 정비사업 수주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선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1분기 수도권 전셋값 폭등…재건축 여파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3.76% 올랐다. 경기·인천은 2.42%, 신도시는 1.95% 상승했다.

이처럼 전세값이 급등한 주요인은 동시다발적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때문이다.

이사철과 전세주택의 월세전환 현상까지 겹쳐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로 이주수요가 밀려나면서 수도권 지역의 전세 품귀 현상은 두드러졌다.

서울은 강동구(8.03%), 강서구(6.12%), 서초구(5.68%), 송파구(4.65%), 강남구(3.97%), 관악구(3.83%), 성동구(3.90%), 동작구(3.41%), 구로구(3.39%)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광명(4.15%), 하남(3.75%), 군포(3.65%), 남양주(3.64%), 인천(3.43%), 양주(3.17%), 구리(3.08%), 안산(3.05%)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3.47%), 파주운정(3.04%), 산본(2.61%), 평촌(2.50%), 김포(2.44%), 판교(2.11%), 분당(2.04%)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분기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상승 폭이 1분기에 비해서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성원기자

GS그룹-수출입은행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GS 2015. 4. 13 한국수출입은행

GS그룹-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GS그룹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그룹과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홍순기 GS 부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홍영표 수은 부행장, 류창훈 수은 기업금융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 부동산3법 개정…재건축·재개발시장 '봄바람'

지난해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3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에 대한 족쇄가 없어지는 것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2.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중심인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1분기 동안 2.33% 오르며 서울 재건축 시장을 이끌었다. ▲강동(3.31%) ▲서초(3.00%) ▲송파(2.51%) 강남(1.67%)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랐다.

강동은 둔촌동 둔촌주공이 작년 말 건축심의 통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2000만~3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강동 고덕주공6단지는 시공사 선정을 전후로 3000만원 정도 상향됐다.

서초는 작년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이 넘었음에도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가격이 올랐다. 서초 반포동 주공1단지는 1억~1억5000만원, 최근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3차와 경남이 8000만~1억5000만원 가량 1분기 동안 상승했다.

송파는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철거와 일반 분양을 앞둔 가락동 가락시영이 2000만~5000만원 가량 앙등됐다.

강남은 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삼성동 상아3차가 지하철9호선 삼성중앙역 개통과 한전부지 개발 호재에 힘입어 면적별로 2000만~1억원가량 상승했다. 개포동 시영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기대감에 2000만~4000만원 정도 올랐다.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도 기지개를 켰다.

부동산114가 뉴타운·재개발구역에 출시된 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서울 재개발구역 지분가격은 2015년 1분기 기준 3.3㎡당 2464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9만원 상승했다. 작년 지방선거의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583만원까지 오른 지분가격은 선거 이후 2430만원까지 떨어진 뒤 소폭 회복 중이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대문구 홍제3구역은 종전 3.3㎡당 1638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96만원 올랐다.

동작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도 건축심의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2647만원에서 2983만원으로 상승했다.

분양시장의 호조와 금리 인하도 겹쳐 부동산 투자 심리는 앞으로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윤정원기자 [illegible]

## '모바일 결제시대' 銀 보안 강화 시급

### 관련예산 선진국보다 낮아

스마트폰을 활용한 계좌이체 등 모바일뱅킹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보안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601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4% 급증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2013년 말보다 29.6%가 증가한 4820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시중은행이 전체 보안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국내외 금융권의 정보보안 최근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IT투자 예산 대비 보안예산 비중은 10~15%였다. 이는 전년도 9.27%보다는 다소 증가한 수치지만 미국(40%)·영국은행(50%)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특허도 보안관련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발표한 '핀테크 산업 특허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 건수는 189건이다. 이중 보안 인증에 대한 특허는 7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특허는 지급결제 방식으로 165건에 달했다. 이밖에 응용서비스(12건), 단말기회로(3건), 시스템 네트워크(2건) 등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절반에 가까운 89건을 보유했다. 이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 28건, 국민은행 15건, 하나은행 11건 순이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20개국에서 동시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시민이 S6와 S6 엣지 개통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통법 발목…통신주 '박스권'

## 이통 3사, 갤S6 출시일 '깜짝반등' 후 '횡보세'

최근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도 통신주만은 박스권에 머물러있다. 이통3사 주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S6엣지 출시 당일 소폭 반등했다가 주말 이후 다시 떨어졌다. 정부의 통신비 규제 정책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통신업종은 전일보다 2.24% 오른 361.17로 마감했다.

SK텔레콤은 전일대비 1.33%(3500원) 오른 2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5만8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KT는 3.81%(1100원) 오른 3만원, LG유플러스는 3.85%(400원) 오른 1만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통3사의 상승반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주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9월 24일 421.6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단통법 시행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없애고 통신사의 수익을 개선시킬 것이란 기대로 상승했던 투자심리가 단통법 시행 이후 미미한 효과에 다시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이들 통신주는 코스피가 2.2% 상승한 지난 한주에도 3.2% 하락하며 부진을 이어왔다. 지난주 LG유플러스는 4.6% 떨어지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SK텔레콤(-3.2%), KT(-1.2%)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동3사 주가는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S6엣지 출시와 함께 깜짝 반등하며 분위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전일대비 1.52% 오른 26만6500원, LG유플러스는 2.90% 오른 1만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KT는 0.34% 떨어진 2만8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좀처럼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는 통신업계 부진을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제 할인율 상향 조정, 이동3사의 마케팅 경쟁에 따른 부담이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요금할인율은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동3사가 공시한 갤럭시S6 32GB 모델 지원금은 KT가 가장 많은 21만1000원을 책정해 보조금 상한액에 크게 못 미쳤다.

주말동안 단통법이 없는 해외 시장에서 갤럭시S6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던 반면 국내 유통시장에서 '갤럭시S6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말이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동3사 주가는 다시 떨어졌다. SK텔레콤은 1.50% 내린 26만2500원, KT는 0.17% 떨어진 2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LG유플러스도 1만400원으로 2.35% 내려 약세 마감했다. /김혜수기자

# 수익 + 안정성 = 특판RP

## 증권업계, RP 판매 경쟁 돌입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적금보다 단 1%라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들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꼽을 수 있다. RP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주고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특히 증권사 RP는 원금 손실 위험을 떠안지 않으면서 4% 안팎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최근 증권사들도 고객 확보 차원에서 잇따라 RP 상품을 내놓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3개월 만기 특판 RP 상품을 계속 판매한다고 밝혔다.

동부증권 특판RP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금융상품 가입 등의 조건 없이 1000만~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특판RP에 편입되는 담보채권은 A+등급에서부터 AAA등급까지의 우량채권이다. 매주 50억원 한도로 판매하는 동안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로 떨어져 각종 금융상품의 금리도 인하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고객을 확보하려는 증권사 특판RP 상품은 금리조건이나 안정성 면에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도 RP 특판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일 총 500억원 규모를 판매하는 특별한 매일 RP는 3개월 만기에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대우증권의 추천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대우증권으로 이동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추천상품에 투자한 금액 또는 평가된 유지금액 만큼 가입할 수 있다.

또 매주 총 100억 규모로 공급되는 특별한 RP는 3개월 만기에 금리는 연 3.0%다. 대우증권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조건없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별한 RP는 업계 최고의 AA+ 신용등급을 받은 KDB대우증권이 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 담보채권을 편입해 안정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기존 까다로운 가입조건의 특판상품들과는 달리 신규 고객이거나 추천상품 매수 또는 자산을 옮겨온 고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신한금융투자 챌린더빈

따뜻한 금융 Challenge School

실무자가 진행하는 1:1 맞춤 취업상담

신청서 다운로드 : shinhanblog.blog.me

"증권업 취업 노하우는?" 신한금융투자는 증권회사의 각 부서 실무자가 취업노하우를 전하는 제2회 따뜻한 금융 챌린지 스쿨 참가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한금투 제공

# 경남기업, 42년 만에 주식시장서 '퇴출'

경남기업이 15일 주식시장에 입성한 지 42년 만에 증시에서 퇴출된다.

경남기업은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기업공개(IPO)에 나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나, 자본 잠식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주식시장서 퇴출하게 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잠식'이 확인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날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자로 상장폐지된다.

경남기업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6일 88.64% 떨어졌다가 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94.91% 급등하기도 했다. 13일 경남기업 주가는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204원에 마감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은 적용받지 않는다.

경남기업은 1951년 3월 대구에서 설립돼 시공능력 순위 20위권에 달하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1977년 반포 경남아파트를 시작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최근에는 '경남 아너스빌'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했다. 2009년 채권단이 또다시 워크아웃을 결정하는 등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경남기업은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2013년 당기순손실 310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도 40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경남기업은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의혹 수사의 표적으로 지목됐고 지난해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외압설이 돌아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다. /김보배기자 bobae@

故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 현수막이 걸린 경남기업 본사. /연합뉴스

# '이완구 테마주' 일제 급락 마감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이완구 테마주'가 급락세를 나타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완구 테마주로 불렸던 신성그룹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를 나온 이완근 신성그룹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날 신성이엔지의 주가는 전일대비 9.43% 하락한 1680원 거래로 마감됐다.

신성에프에이의 주가도 전거래일보다 9.19% 떨어진 2025원을 기록했고, 신성솔라에너지 주가 역시 전일대비 3.77% 하락한 1405원에 마쳤다.

이밖에 유니더스 주가도 4.95% 하락 마감했다. 유니더스의 최대주주인 김덕성씨가 이완구 국무총리와 성균관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 포르쉐, 국내 첫 초고성능 타이어로 달린다

## 한국타이어, 5년내 람보르기니·페라리도 추진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업계 최초로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병일 한국타이어 글로벌 OE(신차용 타이어) 전무는 14일 충남 금산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까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이 중장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우 전무는 슈퍼카 제작사 가운데 1곳과 이달 말에 기술 미팅을 할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포르쉐 마칸의 상위 모델 2종 관련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911 등의 차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는 대표적인 초고성능 타이어인 '벤투스 S1 에보2'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상품 '벤투스 S1 에보2 SUV'를 포르쉐 마칸에 장착하기로 했다.

포르쉐 마칸은 극한의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과 스포티한 핸들링을 요구하는 세계 최초 전·후륜 이종규격을 도입한 SUV 스포츠카다. 이번에 한국타이어가 포르쉐에 공급한 '벤투스 S1 에보2 SUV'는 듀얼 레이어 트레드(Dual Layer Tread) 기술이 적용돼 전·후륜 이종규격에 최적화된 초고성능 타이어다.

듀얼 레이어 트레드는 극한의 조건에서 트레드가 닳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드에 두 개의 컴파운드를 적용해 안정적인 접지력과 스포티한 핸들링의 성능이 동시에 나타나도록 설계된 트레드다.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제품은 독일의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 DTM(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면서 검증된 기술력을 집약한 초고성능 타이어다. 맞춤형으로 개발된 '벤투스 S1 에보2 SUV'는 DTM 대회 타이어와 같은 3중 레이어 블록 디자인이 적용됐다. 이는 타이어 마모시에 효율적인 접지 성능을 제공한다. '벤투스 S1 에보2 SUV'는 또한 젖은 노면 주행과 마모, 원노화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타이어 소음을 감소시키는 사이드월을 적용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은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 것은 R&D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톱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한국타이어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들이 한국타이어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차에 타이어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3대 명차 모두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됐다. 최근에는 뉴 아우디 TT와 포드 머스탱 등 고성능 스포츠카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정소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올 뉴 투싼' 무료로 타보세요

## 현대車 내달 12일까지 최대 5시간 시승 가능

현대자동차가 카셰어링 업체와 연계해 '올 뉴 투싼' 시승 프로그램을 내달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승 프로그램은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와의 제휴를 통해 희망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올 뉴 투싼'을 시승해 보고 반납하는 무인 시승 프로그램이다. 최대 5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시승 후 우수 체험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그린카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www.greencar.c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기존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이 일정기간 차량을 보유했던 기존 방식을 깨고 더 많은 고객이 '올 뉴 투싼'을 시승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등 50곳에 '올 뉴 투싼 카셰어링존'을 설치해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개념 시승 프로그램은 올 뉴 투싼의 주요 고객층인 2030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자유로운 시승과 상품성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으로 올 뉴 투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가 올 뉴 투싼 카셰어링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차 제공

/정용기기자 yong@

## 인피니티코리아 총괄 이장환 상무 선임

이장환(사진) 상무가 인피니티코리아 총괄로 임명됐다.

이 총괄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총괄 대인피서에게 직접보고 하게 됐다. 인피니티는 국내 독립 운영 발표도 진행했다.

한국에서 닛산 비즈니스와의 시너지를 위해 정보기술, 재무, 서비스 등 지원부서 업무는 한국닛산의 타케히코 키쿠치 대표 총괄 체제가 유지된다.

이번 독립 운영 결정은 국내에서의 성장을 위한 글로벌 계획의 일환이다. 이장환 인피니티 총괄은 전반적인 사업 전략과 브랜드 확장 업무를 담당한다.

이 총괄은 2004년 인피니티에 입사해 닛산에서 인피니티 세일즈 마케팅 총괄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상품기획, 판매, 애프터 세일즈, 마케팅, 경영기획 업무를 경험했다.

이 총괄은 인피니티 입사 이전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수입차 브랜드에서 세일즈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 총괄은 "인피니티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본사에서 독립 지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글로벌 CEO 직보체계로 위상 정립을 한 데 이어 인피니티코리아 본사 직보 체제 전환은 인피니티 브랜드 공격경영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인피니티 브랜드 독립과 함께 향후 국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기자

네팔 해외교육 지원사업 협약식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오지 마을 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대오일뱅크, 네팔 오지 학교 재건축

## 나눔재단, 2억5000만원 지원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은 2억 5000만원을 엄홍길휴먼재단에 지원해 내년 4월까지 학교를 재건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은 이재후 엄홍길휴먼재단 이사장, 엄홍길 상임이사, 김창기 1% 나눔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네팔 고르키 만드레 학교 재건축 지원사업은 베트남 썬남과 티엔케에 이어 세 번째다.

협약에 따라 2억5000만원을 엄홍길휴먼재단에 지원하고 학교 재건축과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한다.

이곳은 산악인 엄홍길 씨가 지난 1996년 마나슬루봉을 등반할 때 고르카 만드레 지역을 방문해 인연을 맺은 곳으로 해발 1800m의 험준한 지형으로 알려져있다. 이곳에서 수업 받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240여 명은 붕괴 위험을 받고 있어, 재단의 지원아래 내년 4월까지 교실 9개와 편의시설을 갖춘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정소현기자 [illegible]

# 현대·기아차, 도서지역 방문점검 출동

## 울릉·추자도 등 14곳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정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고객을 위해 '도서지역 방문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특별 순회 점검팀을 투입해 도서지역 고객들에게 차량 점검과 각종 정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릉도, 추자도 등 총 14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도서지역의 현대·기아차 고객은 특별서비스 기간 동안 ▲엔진·변속기·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기본 성능 점검 ▲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 정비 ▲차량관리 관련 상담과 정비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정보 획득이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매 관련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방문서비스 일자

| 위치 | 현대차 | 기아차 |
|---|---|---|
| 덕적도 | 4.21~23 | 4.15~17 |
| 도초도 | 4.16~17 | |
| 백령도 | 4.15~16 | 4.27 |
| 사량도 | | 4.23~24 |
| 시도 | 4.15 | |
| 안좌도 | | 4.23~30 |
| 욕지도 | | 4.16~17 |
| 울릉도 | 4.14~16 | 5.11~12 |
| 위도 | 4.16~17 | 4.23~24 |
| 임자도 | | 4.24 |
| 자월도 | | 4.13~15 |
| 자은도 | | 4.23~24 |
| 추자도 | 5.7 | 5.7 |
| 흑산도 | | 4.21~23 |

'도서지역 방문 점검 서비스'는 현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상길기자

# 방만경영·헐값매각 우려… 석유公 '진퇴양난'

### 해외자산 매물로 내놨지만 실적부진에 인수업체 없어 정부, 구조조정 등 개입시사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가 작년 당기순손실이 1조6000억원을 넘으면서 공사 정상화를 위해 해외자산을 매각계획을 세웠지만 무리한 해외개발사업의 부작용으로 헐값매각 우려만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공사를 방만경영 중점관리 점검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실사 결과와 연계해 석유공사 등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서문규 사장(오른쪽)이 지난달 1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세계석유회의(WPC) 프로그램 및 전략위원회 공식 환영 리셉션 에서 요제프 토트 세계석유회의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석유공사의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인 뒷에 해외자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10개 사업에서 2조6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부채규모도 석유공사는 2008년 5조5000억원(73%)에서 2013년 18조5000억원(221%)으로 안전선인 부채비율 200%를 넘긴 상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도 1조61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자산 2조7003억원을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정부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고한 상태다.

문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해외자산 매각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실제 2009년 1월 생산전량을 페루국영석유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투자한 페루의 유전개발회사 사비아 페루(Savia Peru)의 매각작업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루 광구의 생산량은 5년째 1만배럴 그대로 멈춰 있다. 석유공사의 50%의 지분이 반영된 5년간의 당기순이익 1811억원도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고 현지에 재투자됐다. 결국 매물로 나왔지만 실적부진으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또 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매각한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l)의 매각 과정에서 입은 손실액은 1조7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선 석유공사가 해외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연히 정부로선 인력구조조정이나 인봉 체계 등 공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병준기자 gjh@metroseoul.co.kr

---

제일기획 '2015 차이나 미디어 컨퍼런스'

## 요우커 사로잡을 비법은…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임대기)이 오는 16일 바이두 등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미디어 기업들을 초청해 '2015 차이나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중국 온라인 미디어 기업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 매체 바이두(Baidu), 바이두 산하 동영상 매체 아이치이(iQiyi), 중국 여행 후기 매체 마펑워(Mafengwo), 여성 관련 온라인 매체 요카(YOKA) 등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매체들이 한국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中 대표 온라인 매체 초청 쇼핑·뷰티 등 트렌드 분석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 온라인 소비자의 특징과 쇼핑·뷰티·여행 등에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해 약 3000만명으로 추정되는 하이타오족(중국 해외 직구족)과 한국 방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제일기획의 중국 디지털 자회사 펑타이(PENGTAI)가 진행하며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바이두는 재방문어 부사장 천쩐펑이 연사로 나서 춘절 등 중국의 시즌 이슈별 온라인 검색 마케팅 방법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국판 유튜브로 통하는 아이치이(iQiYi)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행 및 한류 동영상 마케팅 사례를 소개한다. 중국 최대 여행후기매체 마펑워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위강은 여행후기로 분석한 요우커의 특징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여성매체 요카(YOKA.com)는 한류에 따른 쇼핑 트렌드 분석과 뷰티브랜드 마케팅 사례를 발표한다.

2015 차이나 미디어 컨퍼런스 초청장 /제일기획 제공

현재 중국은 3억 명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와 4500만 명이 넘는 모바일 커머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온라인 해외 직구 비중이 10% 가량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국 방문 요우커 수는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8년에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14일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직접 전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준기자

---

## 사장님과 밥 먹고 볼링… "3·6·9 증후군 안녕~"

### 한화케미칼 'CEO와 저녁' 직원들과 사내 소통 강화

한화케미칼은 13일부터 영업 간 서울 광화문과 명동 등지에서 대리 진급자 20명과 함께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저녁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는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이 '저녁이 있는 삶'을 주제로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사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달 첫째 월요일에 기러기 아빠, 미혼 여직원, 자녀 직원, 솔로 직원 등 다양한 그룹별로 요리강좌 수강, 볼링, 문보신 등의 테마를 선정해 진행한다.

13일 열린 대리 진급자와의 행사에서 김 사장은 솔직 담백한 이야기와 격식 없는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직장생활 3, 6, 9년차에 의욕이 떨어지고 흥이 나지 않는다는 이른바 '3·6·9 증후군' 이야기가 나오자 김 사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순환보직이나 글로벌 직무연수 등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자기개발을 주도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평소 "진정성 있는 경영의 첫단추는 조직원들 간 허심탄회한 소통부터다. 소통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현 대리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장님과 저녁을 같이 먹고 볼링을 치고 나니 회사가 가족처럼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범종기자 curtis@

---

## 현대차 디자인 철학 '헬리오 커브' 밀라노 수놓다

### 밀라노 디자인 위크 참석 400개 나무조각 연결 '자연의 움직임' 재탄생

현대차가 '디자인 메카'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이 집대성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자동차(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전시회인 '2015 밀라노 디자인 위크(2015 Milan Design Week)'에 '스컬프처 인 모션(Sculpture In Motion)' 프로젝트 두번째 작품 '헬리오 커브(Helio Curve)'를 전시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컬프처 인 모션'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Fluidic Sculpture)'를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의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2013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구(球)와 빛으로 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 1세대 '스컬프처 인 모션(Sculpture In Motion)' 조형 예술품을 첫 선 보인 후 올 해에는 실제 움직임을 표현한 키네틱 아트 작품 '헬리오 커브'로 재탄생 시켰다. 현대디자인센터에서 직접 기획·개발한 작품 '헬리오 커브'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루벤 마골린(Reuben Margolin)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이 작품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전시장 슈퍼스튜디오 피유에서 전시된다. '헬리오 커브'는 높이 5m, 길이 26m의 전시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예술작품이다.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400개의 나무블록이 선으로 연결돼 양쪽 구동축의 움직임을 통해 3m 높이의 파도가 치는 듯한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을 그려냈다.

현대차가 '2015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해 '스컬프처 인 모션(Sculpture In Motion)' 프로젝트 두번째 작품 '헬리오 커브(Helio Curve)'를 전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순히 차량의 디자인이 아닌 생활 속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디자인 철학을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에게 경험하고 공감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 與 "경제살리기 적극 뒷받침"

### 새누리당-전경련 간담회 공공건설 입찰제한 인수·합병 걸림돌 등 '규제완화' 건의 빗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는 14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여권에 건의했다. 이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다.

이번 간담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10분간 열린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이 일제히 입었던 양복 재킷을 벗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진지하게 진행됐다.

재계는 우선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입찰담합기업들의 공공건설입찰 제한 등의 규제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국내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에너지 신사업과 초전도 케이블 사업 육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밝혔다. 현대차는 소수자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 물적 분할과 인수·합병(M&A) 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고 기획재정부에선 필요하면 법개정 등 지원정책을 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투자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김 대표를 비롯,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진복 권성동 김성태 박민식 강석훈 정조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선 주형환 재정부 1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병석 삼성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박영춘 SK 전무, 조갑호 LG 전무, 이석환 롯데 상무, 전중선 포스코 상무 등 33명의 주요그룹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

/송정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비즈니스모델, 서비스에 집중"

### 김대훈 LG CNS 사장 IoT시대 미래상 제시

김대훈(사진) LG CNS 사장은 최근 IT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논의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4일 사보 모아진을 통해 "향후 IoT산업은 기기보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IoT에 대한 현재의 모습과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내 IoT(Internet of Things)는 things(사물)에 대한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IoT의 진정한 의미는 things들이 연결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더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기 관점의 IoT는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LED, 스마트 포크 등 신기하고 기발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며 "반면 서비스 관점의 IoT는 무엇을 위해 things를 연결할 것인가가 초점이기 때문에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케어 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최문경기자

KT는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속한 한·중·일 주요 통신 장비 사업자 최고기술경영자(CTO)들과 함께 5G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차세대 IoT 기술개발을 위한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를 KT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제공

## KT '5G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시동

### ITU 한·중·일 자문회의

KT는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속한 한·중·일 주요 통신 장비 사업자 최고기술경영자(CTO)들과 함께 5G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을 위한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를 서울 KT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ITU 한·중·일 CTO 자문 회의는 ITU 사무국이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MWC)에서 "IoT 시대의 근간인 5G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황창규 회장의 기조연설을 보고 KT에 제안을 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ITU 이재섭 표준화 총국장과 KT 이동면 융합기술원장을 비롯해 NTT, KDDI, China Mobile 등의 한·중·일 주요 통신사업자와 NEC, Huawei 등 장비제조사 CTO들이 참여했다. 'Network 2020 in Support of 5G(IMT 2020)'와 'IoT' 2가지 주제를 가지고 1,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됐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 기술 표준화는 유럽, 미국에 비해 한·중·일 통신 사업자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5G 기술 표준화는 한·중·일 통신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5G와 IoT 국제표준화를 위한 핵심영역에서의 통신 사업자 표준 요구사항을 정립한 선언문이 채택됐다. 앞으로 ITU에서는 이 선언문을 최우선으로 표준화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차세대 유무선 통합 구조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ITU 표준화 활동을 통해 특히 그간 통신망 운용 비용에 부담을 줬던 제조업체별 다른 망 관리 체계를 비롯해 속도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경기자

## SKT, 와이파이 가상 서버 국내 첫 상용화

SK텔레콤은 'T 와이파이(WiFi)' 체감 품질의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 가상화 장비인 '클라우드 AC'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라우드 AC는 와이파이 트래픽이 몰릴 경우 가상의 서버를 만들어 이를 해결하는 장비다.

상용비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유연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 트래픽 과밀 시 더욱 확대 나눔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AC에는 와이파이 사용 중 장소를 옮길 경우 발생 가능한 접속 끊김 현상을 개선하는 '패스트 핸드오버' 기술도 적용됐다.

접속 끊김 현상은 와이파이 사용자가 접속 중인 AP(Access Point,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 역할을 하는 장비)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다른 AP 범위로 넘어가는 서비스 경계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패스트 핸드오버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인근의 AP로 자동으로 빠르게 연결해 와이파이 접속이 끊기는 문제를 최소화했다.

/정문경기자 [illegible]

## 갤럭시S6 개통하고 11캐럿 토파즈 받자

### LGU+, 보석증정 이벤트

LG유플러스는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갤럭시S6, S6 엣지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토파즈 11캐럿 보석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서울 강남역직영점, 부산 부산직영점, 충청 둔산직영점 등 100여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 경품 응모권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토파즈 반지를 총 11명에게 증정한다. 이번 행사 매장에 가입은 하지 않더라도 '단골 고객'으로 등록만 하면 추첨을 통해 25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를 총 11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최문경기자

**올해 첫 포도 맛 보세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첫 출하된 대전 신낙지역의 델라웨어 포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百 렌탈·케어시장 진출

## 이달 법인 설립, 현대홈 600억 출자… 5년새 가입자수 100만명 목표

정지선(44)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렌탈 케어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패션업체 한섬과 가구업체 리바트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 힘써온 정 회장이 이번엔 렌탈 케어시장에 진출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렌탈·케어사업 진출을 위해 이달 중 현대렌탈케어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이 600억원을 출자해 새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다. 현대렌탈케어 대표는 김화응 현대리바트 사장이 겸임하고, 외부에서 전문인력도 영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 그룹 유통계열과의 시너지를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종합 렌탈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특히 렌탈사업 특성상 홈쇼핑을 통해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현대홈쇼핑을 통한 가입자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백화점 내에서 렌탈숍을 운영하는 한편, '현대H몰'과 리바트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렌탈·케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5년 내에 가입자수 100만명, 매출 25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수적인 경영을 해 온 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백화점 사업의 성장 정체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김포프리미엄아웃렛을 개장했다. 시내 면세점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그룹 관계자는 "과거 소유 중심이던 소비 트렌드가 최근 이용 체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렌탈시장 전망이 밝다"며 "현대백화점그룹은 온·오프라인 유통 네트워크에다 고객관리 능력, 상품소싱 노하우 등에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종합생활문화기업으로의 입지를 굳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태기자 21cmdun@metroseoul.co.kr

# 뷰티업계, 요우커·블로거 덕에 好好

### 입소문 효과로 신제품 품절

최근 출시한 국내 화장제품이 블로거나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소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일부 신제품은 매장에서 초도 물량이 동나 재입고되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라네즈가 최근 출시한 '투톤 립바'는 출시 한달만에 국내외 판매 수량 8만 개를 돌파했다. 출시 전 모델 송혜교의 화보가 공개되면서 입소문을 탄 제품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라네즈 관계자는 "출시 전부터 송혜교 화보 속 립스틱 제품이 어떤 것이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며 "출시 직후에는 많은 고객이 투톤 립바를 찾아 일시 품절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샘이 1월 초에 내놓은 '빅스프레스 뷰티 코튼 스완'은 출시 두 달만에 완판됐다. '왕멍멍'이라는 애칭을 붙여 미생 패러디 광고를 공식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게재했던 것이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업계 측은 분석했다. 해당 제품은 이달 초에 재입고 돼 정상 판매 중이다.

홀리카 홀리카가 2012년 출시한 '피그노즈 클리어 블랙헤드 3-Step 키트'는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재까지 280만 개가 팔렸다.

해당 제품은 단계별로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마스크 팩으로 관광객 매출이 높은 명동 매장 5곳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수정기자 ka

# 공정위, 프랜차이즈업계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직권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등 커피·피자·햄버거 등 외식 분야 상위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나 가맹거래법 9조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정기조사의 경우 먼저 서면 조사를 한 후 불공정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사전예고 없이 현장에 조사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며 "점검하는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제일모직 비이커, SFDF 수상자와 협업

제일모직(대표 윤주화·김봉영) 비이커는 제10회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의 수상자인 계한희와 협업 상품을 한정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한희는 KYE 2015 컬렉션 의 주요모티브인 '벌'과 비이커(BEAKER)의 'B'를 활용한 아이템을 제안했다. 특히 미니백은 계한희가 특별히 고안한 그래픽으로 구성됐으며 미니숄더 형태로 선보인다.

# 현대리바트 주방가구 30%할인… B2C 공략

현대백화점그룹에 전개하는 현대리바트(사장 김화응)가 주방가구 사업 강화 일환으로 전 품목의 가격을 낮췄다.

현대리바트는 주방가구 18개 전품목 판매 가격을 평균 30%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주방가구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다. 주방가구 시장은 홈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와 주택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매년 규모가 20~30% 이상 커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을 기반으로 기존의 맞춤형 소량생산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해 제작 단가를 낮추고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과 회사의 마진폭 축소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주방가구 온라인 판매망과 리바트스타일샵 등 12개 직영점을 통해 대량 판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1000만원이상의 고급 B2C 주방가구사업과 B2B(기업간 거래)용 빌트인가구 사업에 집중해 왔다. 특히 회사 설립과 함께 시작한 B2B 주방가구사업은 매년 신축 아파트 5만 가구 이상에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 B2B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주방가구 분야에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직영 유통망과 전담 서비스 조직도 확대한다. 서울(장둥), 울산·부산 등 광역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을 순차적으로 열고 주방가구 AS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 리첸(프리미엄), 이즈마인(온라인) 등 다양한 브랜드로 전개하던 주방가구 사업을 '리바트 키친'으로 통합한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온라인을 포함한 본사직영 유통체제를 통해 고객에게 균등한 제품과 품질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선보여 가격 진정성을 높인 것이 특장"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

## 농심, 면과 맛 확 바꾼 '둥지냉면'

농심(대표 박준)은 면과 국물 맛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둥지 물김치냉면'과 '둥지 비빔냉면'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제품의 면발은 다시마 분말을 넣어 냉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농심 측은 "각종 육수를 우릴 때 다시마와 감칠맛이 기본인 것처럼 육수와 어우러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냉면의 시원함을 살릴 수 있도록 육수와 비빔장 또한 획기적으로 바꿨다. 농심은 새롭게 바뀐 둥지냉면에 물김치를 더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원한 뒷맛을 살렸다. 배추와 무, 표고버섯·당근·미나리·마늘·생강 대파에 사과를 넣어 발효시킨 물김치 국물을 추가한 육수와 비빔장이 특징이다.

농심은 올해 새로워진 둥지냉면 시리즈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6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엘라스틴 바이오 테라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고기능 손상 케어 라인 '엘라스틴 바이오테라피'를 출시했다. '엘라스틴 바이오테라피' 라인은 샴푸 2종을 비롯해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세럼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제품 '엘라스틴 바이오 테라피 뉴트리케어 샴푸'는 프로폴리스, 피토케라틴 성분을 함유해 모발 끝까지 풍부한 영양을 녹여내주고 손상 모발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경단여성 사회진출 기회 '야쿠르트아줌마'

김천 일대에서 '야쿠르트아줌마'로 활동 중인 김정희(47) 판매원은 3남매를 둔 워킹맘이다. 지난 2007년 늦둥이 셋째 임신으로 연 해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경리직을 그만두게 됐다.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육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세 자녀의 교육과 가사활동까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찾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근무시간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야쿠르트아줌마를 통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다양한 분야의 일을 찾아 봤지만 세 자녀의 교육과 집안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야쿠르트아줌마를 평소 친절하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일의 선택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시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비 지원이나 입학지원금 등 자녀까지 고려한 복지혜택이 선택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가 국내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사회 진출 통로가 되고 있다. 나이와 학력 등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부를 채용해 직업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지난 1971년 8월 47명으로 시작한 야쿠르트아줌마는 현재 1만3000명에 달한다. 여성 일자리 창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쿠르트아줌마 일의 가장 큰 장점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오후 중이면 일을 마치기 때문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고 근무 만족도도 높다는 점에서 주부 또

경력단절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야쿠르트아줌마 /한국야쿠르트 제공

## 1만3천명 평균 근속연수 9.8년… 탄력 근무로 육아 병행·여가생활까지

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고객의 직장과 가정에 제품 전달이 마무리되면 남는 시간을 활용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로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많다.

경안 지점의 이윤숙(54) 판매원은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오후 중이면 일을 마치기 때문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구의 내 있는 국악 학원에서 민요를 배우기 시작해 입문 2년 만에 '뽕짝도 장두게 놀이 예능 전수자'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야쿠르트아줌마는 40대, 50대가 각각 39%,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30대(16%)와 60대(10%) 순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8년으로 지난해 국내 여성 임금 근로자 평균(4.4년)의 두 배 이상이다. 하루 평균 6.8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170만 원을 받는다.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평균 월급(145만원)보다 25만원 가량 많다. 실제로 상위 5%는 월 평균 임금이 약 300만원, 상위 10%는 평균 약 270만원, 상위 50%는 평균 약 210만원을 번다.

이 같은 매력 덕에 한국야쿠르트에서 자체 구축한 구직 사이트 '야쿠르트 레이디'는 10만 건에 달하는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주부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야쿠르트아줌마가 더욱 편안히 활동할 수 있도록 탑승형 전동카트 코코와 아동형 카드결제기도 지급했다.

어창희 한국야쿠르트 영업 이사는 "야쿠르트아줌마 직업의 장점은 근무 시간의 탄력성과 높은 근속 연수 등에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편리한 활동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metroseoul.co.kr

**한국야쿠르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 제도 | 세부 내용 |
| --- | --- |
| 야쿠르트아줌마 | 탄력적 근무 시간제, 육아·입학금 지원, 여성 특화 건강검진 |
| 프리데이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칼퇴근 |
| 가족 사랑 휴가제 | 정기휴가에 연·월차를 붙여 휴가 권장 |
| 복리후생제도 | 만 6세 자녀 중 미취학 자녀 기준 분기별 유아교육비 |
| 임직원 자녀 캠프 |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 대상 캠프 |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 "직원이 즐거운 일터만들기"

### 매주 수요일 '프리데이'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확대

한국야쿠르트는 2007년부터 '즐거운 일터 만들기(Great Work Plac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전 직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만드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한국야쿠르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중점 우선 과제로 선정, 실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한국야쿠르트는 유독 빨리 불이 꺼진다. '프리데이(Free Day)'로 정해 오후 6시면 모든 직원이 바로 퇴근하도록 야근이나 저녁 회식을 금지했다.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제도다.

대표이사가 각 부서의 퇴근율을 매주 보고받으며 야근이 있는 직원은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업부별 연말 평가에도 퇴근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프리데이에는 임직원 모두가 자율복을 입고 일하도록 해 창의적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름 정기 휴가의 명칭은 '가족 사랑 휴가제'로 바꾸고 기존 정기휴가에 연·월차를 붙여 길게 휴가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계 휴가철에만 운영하던 휴양소를 봄, 가을철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모든 산정자에게는 콘도와 휴양소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변 관광지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산 장려비인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도 두드러진다. 만 6세 자녀 중 미취학 자녀를 기준으로 분기별 유아 교육비를 주는 것은 물론 이후 대학교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

야쿠르트아줌마도 예외가 아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야쿠르트아줌마의 복지를 위해 여성 특화 건강검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2011년에는 경기 양평에 인재개발원을 설립했다. 직원교육 목적과 휴양, 타 기업 연수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까지 받은 복합 교육문화공간이다. 이곳에선 가족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임직원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

# 주말마다 이색 마켓… '팔색조' 매력 뽐낸다

**컨테이너몰 커먼그라운드 18일 '플라워 마켓' 열어 젊은층 놀이공간 제공도**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은 지난 11일 커먼그라운드 건대점에서 디자인 마켓을 열었다. 방문객들이 디자인 마켓을 둘러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 제공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대표 박동문)이 전개하는 커먼그라운드가 주말마다 특색있는 이벤트를 열어 주목받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는 18일 커먼그라운드 건대점에서 꽃과 가드닝을 콘셉트로 플라워 마켓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커먼그라운드는 주말마다 중앙 광장인 마켓 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주제로 'CG 마켓'을 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디자인 마켓과 푸드마켓을 진행한 바 있다. 18일에는 가드닝 소품, 다육식물 등 다양한 플라워 가드닝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픈한 커먼그라운드는 코오롱FnC에서 첫 선을 보인 유통 브랜드다. '마켓'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패션, F&B(식음료), 라이프스타일 숍 등의 쇼핑 공간과 공연, 전시가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유통 플랫폼이다.

200개의 대형 컨테이너를 유기적으로 쌓아 올려 지었으며 56개 패션 브랜드와 16개의 F&B, 1개의 문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신진 브랜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코오롱FnC 자체 브랜드를 제외한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점시켰으며 식음료 역시 소문난 소규모 유명 맛집들로 채워졌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커먼그라운드는 단기간의 개발이 어려운 부지에 유동적 맞춤 건축이 가능하다. 쌓아 올린 200개의 컨테이너 건축물은 지역 상권 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 이화의료원, 우즈벡에 의료 노하우 전수

**쇼흐병원과 협력 의향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원장 이순남)은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단장으로 한 이화의료원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이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의 쇼흐병원(Shox Medical Center)을 방문해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다각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즈베키스탄 쇼흐병원 에르마노브 쿠드라트(Ermanov Kudrat) 이사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향후 양 병원 간 교류 협력과 이화의료원의 우수 의료 기술 전수 등에 대해 합의했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문혜성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타쉬켄트 지역의 외과 산부인과 의료진 100여명에게 특강을 했다.

또 쇼흐병원 의료진과 함께 80여명의 환자를 진료, 이화의료원의 우수 의료 기술을 전파했다.

백 병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쇼흐병원과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이화의료원의 해외 진출의 중요한 요지로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 기술 전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의료수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오른쪽)이 쇼흐병원을 방문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제공

## "하루 30분 책 읽으세요"

**강강술래, 길벗출판 도서증정 이벤트**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지난 2013년부터 매월 도서출판 길벗과 함께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며 책 읽는 사회풍토 조성과 독서에 대한 관심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30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과 '하루에 한 동작 뱃살' 등 이달의 선정도서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은 잘 나가는 글로벌 마케팅부터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난 작은 기업 마케팅까지 56가지 성공사례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케팅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준다.

하루에 한 동작 뱃살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비용 부담으로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뱃살을 뺄 수 있도록 체력에 맞게 복부 고민을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을 소개한다.

한편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봄나들이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를 33%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또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 또는 술래양념 1팩(520g)을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불고기(50g)를 덤으로 증정한다.

/김승호기자 bona@metroseoul.co.kr

## 서울메트로, 지하철 질서확립 앞장

**7개 환승역서 질서캠페인**

서울메트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15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지하철 7개 환승역에서 합동 질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을 운영 중에 있어 캠페인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페인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서 타기 ▲우측보행 생활화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기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배려 ▲지하철 내 보행 시 스마트폰 이용 자제하기 등 지하철 이용 에티켓과 관련한 내용이다.

동묘앞역, 합정역, 왕십리역, 잠실역, 영등포구청역, 노원역, 총신대입구역에서 실시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합동 질서 캠페인을 통해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기초 질서 지키기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올해부터 매월 셋째 수요일을 '지하철 질서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LG전자가 '스마트 오디오', '와이파이 사운드바' 등에 '구글 캐스트(Google Cast)' 기능을 지원하며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모델이 LG 스마트 오디오 3종과 사운드바를 착한 제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선 없이 음악 즐긴다

## LG전자 스마트 오디오 '구글 캐스트' 기능 지원

LG전자가 추가적인 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외부 스피커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전자는 '스마트 오디오(NP8740, NP8540, NP8340)', '와이파이 사운드바(LAS750M)' 등 기존 출시 제품에 '구글 캐스트' 기능을 지원하며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구글 캐스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악을 즐길 때 간단한 조작만으로 무선 스피커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안드로이드 혹은 iOS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르면 4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구글 캐스트'를 지원할 예정인 스트리밍 업체는 '벅스(Bugs)', '튠인(TuneIn)', '디저(Deezer)', '엔피알원(NPROne)', '비욘드팟(BeyondPod)' 등이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오디오'와 '와이파이 사운드바'는 사용환경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도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 캐스트'에 최적이다. 무선으로 고용량, 고음질 음원도 끊김 없이 재생하며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문자나 알람 등에 방해 받지 않고 음악을 즐기게 해준다.

LG전자는 기존에 '스마트 오디오(NP6740, NP8540, NP8340)'와 '와이파이 사운드바(LAS750M)'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글 캐스트'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병훈 LG전자 CAV사업부 전무는 "'구글 캐스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스마트 오디오를 선보여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을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 '삼성 갤S6' 한국만 왜 비싸?

## 소비자, 미국과 역차별 불만… 애플 가격 정책과 반대 모양새

삼성전자가 지난 11~12일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에 대규모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체험공간을 운영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가격정책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이 기기들은 지난 10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0개국에서 동시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품 가격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국 출고가가 미국과 일본보다 비싸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4일 소비자 김모씨는 "국가별로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다를 수 있다 해도 출고가격은 비슷하거나도 해야 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비싼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국인에게 우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미국인을 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지원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국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의 출고가를 미국에서 저렴하게 내놓은 반면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출시해 논란이 됐지만 삼성은 애플과 반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미국 최대 이동사인 버라이즌의 경우 갤럭시S6 32GB 무약정 기준 가격이 한화 약 65만7000원이다. 갤럭시S6 엣지의 경우에도 무약정 가격이 699.99달러(약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2년 약정인 경우 2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을 보상판매하면 공짜에 구매할 수 있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보다 비싼 가격에 출시된 영국의 경우에도 통큰 지원금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갤럭시 S6 출고가가 599파운드(96만4900원)인데 보다폰의 경우 월 49파운드(약 7만8000원)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갤럭시S6(32GB)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출고가는 갤럭시S6가 32GB가 85만8000원, 64GB는 92만4000원. 갤럭시S6엣지는 32GB가 97만9000원, 64GB는 106만6000원으로 비싸다. 여기에 통신사별 보조금은 SK텔레콤은 갤럭시S6 32G 모델에 최고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T는 같은 모델에 최고 21만1000원, LG유플러스는 최고 19만4000원의 보조금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이동통신사와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로 가기 지원 사양이 다른 경우도 있고 세금, 물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은기자 yow@metroseoul.co.kr

# LGU+, 美MGM 미드·영화 VOD 제공

## 235편 국내 독점 서비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료 케이블 채널인 HBO에 이어 메이저 영화사인 MGM사의 드라마와 영화도 한국에 상륙했다.

LG유플러스는 미국 MGM 영화사와 손 잡고 미드 및 영화 국내 최초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MGM사로부터 국내 최초 공개되는 TV시리즈물 135편을 비롯해 영화 100편 등 총 235편의 VOD를 제공 받아 영화 무제한 서비스인 '유플러스 무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매니아층에도 처음 선보인 MGM사 TV시리즈에는 '바이킹스 시즌1~2', '탄유프 시즌1~2', '스타게이트SG-1 시즌1~3', 'L워드 시즌1~2'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킹스 등 인기 미드 VOD와 함께 제공되는 영화 100편에는 '터미네이터', '양들의 침묵', '플래툰', '로보캅', '록키', '미저리', '대드맨워킹',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작전명 발키리' 등 인기 명작 중심으로 편성됐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료 케이블 채널인 HBO에 이어 메이저 영화사인 MGM사의 드라마와 영화도 한국에 상륙했다. /LG유플러스 제공

박준동 LG유플러스 콘텐츠사업부 상무는 "바이킹스는 요즘 미국 현지에서 '왕좌의 게임'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라며 "이번 유플러스 무비를 통해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모든 인기 미드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719@

# LG '新트롬 스타일러' 1만2000대 판매

## 출시 100일만에

/LG전자 제공

LG전자의 신형 트롬 스타일러가 출시 100일 만에 판매량 1만2000대를 기록하며 의류관리기 대표 제품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말 출시한 신형 트롬 스타일러가 3월 말까지 불과 100일 만에 판매량 1만2000대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출시한 기존 제품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5배 많다.

트롬 스타일러는 한 번 입고 세탁하기 부담스러운 양복, 블라우스, 교복 등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옷을 흔들어 털어주는 무빙행어와 스팀으로 섬유 구김, 냄새를 줄여주고 건조해준다. 의류에 묻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과 집먼지 진드기를 99.9% 제거한다.

LG전자는 디자인학과 교수, 기존 제품 사용 고객, 잠재 고객 등으로부터 제품 크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제품 부피를 기존 대비 30% 이상 줄였다. 또한 바지 칼주름 관리기, 고급 의류 스타일링 코스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처럼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한 제품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LG전자는 30~40대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매 고객층을 확보했다.

이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살균, 바지 칼주름 유지, 옷에 밴 냄새 제거, 생활 주름 완화, 먼지 제거 등을 이유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잦은 황사도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트롬 스타일러는 세탁기의 스팀 기술, 냉장고의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 에어컨의 기류 제어 기술 등 주요 가전의 핵심기술을 모은 융복합 제품이다.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 사업본부장 사장은 "LG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트롬 스타일러로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미기자 ecu716@

# 화려함보다 행복이 좋아요

스물로 눈도장 찍은

## 정주연

우엇을 해도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욱 빛나는 스무 살. '스물'(감독 이병헌)은 '병신' 같아도 소중한 스무 살의 감성을 유쾌한 웃음으로 고스란히 담은 영화다. 그러나 그 유쾌함 가운데에서도 애잔함을 전하는 인물이 있다. 극중에서 치호(김우빈)와 엮이는 신인 배우 은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은혜를 연기한 정주연(26)은 2010년 드라마 '폭풍의 연인'으로 연기를 시작했으며 '오로라 공주'로 얼굴을 알린 배우다. 재일교포 영화 '자이니 블루'로 스크린에서도 활약했던 그녀는 '스물'을 통해 첫 상업영화라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

늘씬한 키에 도회적인 이미지. 부드러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외모가 눈에 띈다. 영화 속에서 유독 또래들보다 성숙하게 묘사되는 은혜에 정주연이 캐스팅된 이유다. 정주연 또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은혜에게 가장 끌렸다. 배우로서 추구했던 캐릭터의 매력이 잘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극중 선명하고 강렬한 '은혜'역**
**추구하던 캐릭터에 가장 가까워**
**외로운 감정연기 관객에 전해졌길**

"여자 배우들은 착하고 가녀리거나 예쁜 모습으로 캐릭터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선명하고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어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캣우먼을 연기한 앤 해서웨이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밀라 요보비치처럼요. 그동안 주로 센 역할을 연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스물'의 은혜는 제가 추구하는 캐릭터에 가장 가까웠어요.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멋있잖아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영화 속 은혜는 유난히 외롭게 느껴진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은혜는 연기라는 일에 묶인 채 홀로 있는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정주연도 은혜를 연기하면서 외로움을 깊이 느꼈다. "은혜는 치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인물이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해요. 김우빈과 함께 작업했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은혜의 감정은 정말 외로웠어요. 결국 영화에서는 은혜가 배우로 성공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 뒤에는 쓸쓸함과 공허함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주연은 은혜의 외로움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랐다.

조용하고 낯가림이 많은 편이라는 정주연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 배우라는 꿈을 선택했다. 배우가 지닌 화려함과 환상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원까지 다니지는 못하고 혼자 연기를 공부했던 그녀는 안양예고에 진학한 뒤 연기의 희열을 느끼며 배우의 꿈을 더욱 단단하게 먹었다. 건국대학교 영화과에 들어가 평범하게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며 스무 살을 보냈던 그녀는 스물한 살 때 지금의 소속사인 싸이더스 HQ를 만나 매년 한 작품씩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

지금은 배우라는 꿈을 '화려함과 환상'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영화 속 은혜와 실제 정주연의 다른 점은 여기에도 있다. "많은 배우들이 그렇듯 저도 연기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공허함과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감정기복이 심한 직업이라고 하나봐요. 그런데 결과만을 생각하면 그런 공허함과 쓸쓸함이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지금 정주연의 꿈은 행복한 배우다.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되면 당연히 좋죠(웃음).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만 바라지 않고 성장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어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배우가 될 거예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장기현) 디자인/원숙미

star bag

### 아이돌 컴백 대란 합류

'아이돌 컴백 대란'에 걸그룹 **카라**도 합류한다. 카라 소속사 DSP미디어는 14일 카라가 다음달 일곱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한층 더 성숙해진 카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채웠다"고 전했다. 카라는 지난해 새 멤버 영지를 영입, 4인조로 재정비한 뒤 활동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 무주산골영화제 알려요

배우 **전혜빈**이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드'에 선정됐다. 무주산골영화제 측은 14일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 전혜빈의 이미지가 영화제와 꼭 맞아 떨어졌다"며 "전혜빈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선정 이유와 소감을 밝혔다.

### 아이돌 프로듀서 변신

가수 **김조한**이 아이돌 프로듀서로 변신한다. 쇼브라더스엔터테인먼트는 "장르를 넘나드는 김조한의 재능과 성실함을 보고 프로듀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조한은 쇼브라더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년 동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남녀 신인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할 계획이다.

### 지누션 신곡으로 호흡

'K팝스타3' **장한나**가 지누션과 호흡을 맞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4일 장한나가 지누션의 신곡 '한번 더 말해줘'의 피처링 가수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번 더 말해줘'는 에픽하이 타블로가 공동 작사·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199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뉴디스코 장르다. 15일 공개된다.

# 강우석 감독 차기작은 '고산자'

### 박범신 작가 소설 원작 올 여름 크랭크인 목표

강우석(사진) 감독이 차기작으로 박범신 소설을 원작으로 한 '고산자, 대동여지도'(이하 '고산자')를 확정했다고 제작사 시네마서비스가 14일 밝혔다.

'고산자'는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 제작자로 기록에 남은 김정호와 그의 갈망으로 탄생한 역작 대동여지도를 소재로 한 사극 영화다. 잘못된 지도로 목숨을 잃은 아버지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만들면서 시대적 운명과 맞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네마서비스는 "강우석 감독은 최근 박범신 작가와 직접 만나 '고산자'의 영화화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쳤다"며 "강우석 감독은 사계절 중 여름을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 촬영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대동여지도의 위대한 생동감, 그리고 근현대사를 거쳐 가장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김정호의 일생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현재 시나리오 작업 막바지 단계이며 캐스팅도 진행 중이다. 올 여름 크랭크인해 내년 여름 개봉 예정이다. /정성호기자 jsh@

# 인간 이기심 다룬 연극 '그날의 시선'

### 하하·포미닛·강남 등 릴레이 응원 메시지

공연 전문기획사 에스투탐이 제8작으로 선보이는 연극 '그날의 시선'이 관객을 찾는다.

3년 넘는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 작품은 드라이브를 즐기던 부부가 단순한 접촉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된다. 이들 부부는 상대 운전자에게 치료를 권유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이를 거부한다. 부부는 치료 대신 작은 사례를 전하며 사고는 일단락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잊고 지내던 부부 앞에 상대 운전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남편은 자신이 뺑소니 범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김진호는 "이들의 엇갈린 진술을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인간의 편협함과 하나의 진실 앞에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고 있는 김정범, 한국 연극계의 보석 서은경, 뮤지컬 '모비딕'의 히어로 외 건 등이 출연한다.

한편 방송인 하하를 시작으로 포미닛, 강남, 이윤지, 비투비, 나엘 등이 '그날의 시선'을 향한 릴레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하하는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질수록 연극을 봐야 된다"고 소개했고, 포미닛은 "'그날의 시선'은 좋은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글을 남겼다.

연극 '그날의 시선'은 5월 15일~6월14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에서 공연된다. 문의 070-8638-7890 /장병호기자

# 전도연·김남길의 하드보일드 멜로

### '무뢰한' 5월 개봉 확정

전도연·김남길 주연의 하드보일드 멜로 '무뢰한'(감독 오승욱)이 오는 5월 개봉을 확정했다.

'무뢰한'은 진심을 숨긴 형사와 거짓이라도 믿고 싶은 살인자의 여자, 두 남녀의 피할 수 없는 감정을 그리는 영화다.

전도연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애인을 기다리는 술집 여자 김혜경 역을 맡았으며 김남길은 혜경의 애인인 살인자를 잡으려는 형사 정재곤을 연기했다. /정성호기자

# 세월호 추모 가요계도 동참

### 뮤지션유니온 등 음반·공연으로 유가족 아픔 보듬어

뮤지션유니온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음반 '그 봄을 아직 기다립니다' 앨범 커버. /뮤지션유니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일 년이 흘렀다.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악인들도 뜻을 모았다.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소속 19개 팀은 '그 봄을 아직 기다립니다'를 13일 발매했다.

정통 민중가요 노래패 출신부터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하는 팀까지 여러 장르의 뮤지션들이 세월호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두 장의 CD에 담았다. 앨범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더 이상 떠나보내기 위한 송가가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을 담은 연가이며 굳은 다짐의 합창"이라고 설명했다.

음악평론가 박준흠은 "이 음악들이 유가족들에게 과연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을 그들에게 음악이라는 것이 과연 다가갈 수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음악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1년이 흐른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어개에 담긴 노래들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타임캡슐"이라고 평했다.

뮤지션유니온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 프리버드2에서 '그대 돌아오라' 도 공연한다.

다른 곳에서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공연이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박수현 군 등이 활동한 교내밴드의 학생들이 뮤지션과 협을 합했다. 이들은 박 군의 생전소망이었던 멤버들과 함께 공연하기' 두 번째 공연에 나선다.

오는 13일엔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김창완밴드, 맬로 등이 참여한 리멤버 포에버 공연이 열린다. 19일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가 진행된다. 3호선버터플라이, 기리은,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요조 등이 함께한다.

가수 김장훈은 세월호 유가족의 소망 들어주기 콘서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김장훈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세월호 함림대와 함께 유가족들의 소망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소망콘서트(가제)를 열 계획이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은 이번주 동안 SNS를 통해 대학생 봉사대와 가족들의 소망을 접수받고 있다. /김성현기자 ssnkim@metroseoul.co.kr

# 조정래 '아리랑' 뮤지컬로 재탄생

### 7월 16일~9월 5일 공연 안재욱·김우형 등 캐스팅

왼쪽부터 김성녀 김성녀 안재욱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신시컴퍼니는 오는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창작 뮤지컬 '아리랑'을 공연한다고 14일 밝혔다.

뮤지컬 '아리랑'은 1000만 독자에게 사랑 받은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뮤지컬화한 작품이다. 일제강점기를 살아냈던 민초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투쟁의 역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신시컴퍼니가 2007년 '댄싱 섀도우' 이후 8년의 공백을 깨고 야심차게 준비한 대형 창작 뮤지컬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공연돼 더욱 의미가 크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의식 있는 양반 송수익 역은 뮤지컬 계의 대표 배우 서범석과 빼어난 연기력의 안재욱이 맡는다.

어지러운 시대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양치성 역은 뮤지컬 배우 김우형과 카이가 더블캐스팅됐다. 고난과 유린의 세월을 몸소 감내하는 수국 역은 윤공주와 임혜영이 맡아 한국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줄 예정이다.

수국의 친구로 수난의 나날들을 이겨내는 옥비 역은 국립창극단의 히로인 이소연이 출연해 판소리와 뮤지컬 음악을 오가며 한국의 멋과 흥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수국의 사랑 득보는 뮤지컬 '렌트'로 사랑받은 이창희와 연극배우 김병희가 번갈아 출연한다.

3년 여에 걸쳐 제작된 뮤지컬 '아리랑'은 12권의 소설 속 아픔의 역사를 감골댁 가족사 중심으로 재편해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 정신, 그리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특히 한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아리랑의 다양한 변주를 포함한 50여 곡의 음악들이 기대를 더한다.

뮤지컬 '고스트'의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트래블레이터와 한국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무대, LED와 조명을 이용한 스펙터클한 장면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준기자 mjkim@

# NC '발야구'에 상대팀 "골치네 골치"

## 중심타선 나성범·테임즈까지 출루하면 도루 시도

나성범

에릭 테임즈

나성범·에릭 테임즈 이호준은 도루나 번트와는 약간 거리가 먼 NC 다이노스의 중심타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1루에 출루하면 2루 도루를 감행하거나 번트를 시도해 상대팀을 긴장하게 만든다.

NC의 3·4번 타자로 출전한 나성범과 테임즈는 지난 13일까지 각 3개, 2개의 도루를 기록했다.

나성범은 지난달 28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전에서 1회초 무사 1, 2루에서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이호준 타석에서 2루를 훔치며 시즌 첫 도루를 기록했다.

지난 1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는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좌중간 2루타를 치고 다음타자 테임즈 타석에서 3루를 훔쳤다. 이어 3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도 1회말에 중전 안타를 치고 출루해 테임즈 타석에서 바로 시즌 3호 도루에 성공했다. 도루를 기록하는 날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공격도 잘 풀렸다.

테임즈는 9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을 수립하며 시즌 첫 도루도 함께 작성했다. 이어 11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도 1타점 두수 앞 내야안타를 친 뒤 이호준 타석에서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는 도루에 성공했다.

지난해 도루 14개를 기록한 나성범은 올해 30-30 (홈런 30개, 도루 30개) 기록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NC는 박민우, 김종호, 이종욱 등 발 빠른 타자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나성범과 테임즈까지 가세해 '발야구'를 펼치며 상대팀을 초토화시켰다.

이호준의 경우 도루는 하나지만 2차례 희생번트를 대면서 팀의 응집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1일 넥센전에서 3회 2루 주자 오창민을 3루까지 진루시키는 깔끔한 투수 희생번트를 댔다. 지난 11일 SK전에서는 7회 투수 앞 희생번트로 볼넷으로 출루한 테임즈를 2루로 안전하게 보냈다.

방망이만 잘 쳐도 더할나위 없는 중심타선의 빠른 움직임과 팀 컬러에 NC 김경문 감독은 흐뭇하기만 하다.

/정민준기자 wjdalswns@metroseoul.co.kr

# "서건창·김민성 빨리 와라"

## 넥센 염경엽 감독 '불꺼진 방망이'에 한숨만

넥센 히어로즈의 방망이가 식어 버렸다.

지난해 압도적인 타력으로 선두권을 달렸던 넥센은 올해 강정호가 메이저리그로 떠나고 리드오프 서건창마저 부상으로 빠지면서 타선의 무게감이 확 떨어졌다.

넥센은 지난 9일 두산 베어스의 쿠바 출신 투수 유니스키 마야에게 노히트 노런의 수모를 당했다. 11일에는 '막내구단' KT 위즈의 창단 첫 승의 제물이 됐고 12일에는 KT에 연승까지 헌납했다.

시즌 초반이지만 넥센은 올 시즌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의 위닝시리즈(3연전 중 2승 이상)도 없었다. 지난해 정규시즌을 2위를 기록한 위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올해도 팀 타율이 0.274(2위)로 공격 지표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강정호와 같은 확실한 해결사가 빠지니 무수한 득점 기회를 만들고도 점수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서건창, 김민성의 부상 공백과 새 외국인 타자 브래드 스나이더(타율 0.182)의 극심한 부진이 아쉽다.

염경엽(사진) 넥센 감독은 "지금 상황에서는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며 "당분간은 무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민성과 서건창이 복귀할 때까지는 5할 승부를 목표로 무리하지 않고 힘을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준기자

# 체력 저하 김효주 다시 하와이로

## 롯데챔피언십 출격 강행군 '컨디션 회복 관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슈퍼루키' 김효주(20·롯데·사진)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체력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달 파운더스컵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첫 승을 올린 김효주는 연속 대회 출전을 이어오다 결국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체력 저하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권 이유였다.

김효주는 이후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이 열리는 미국 하와이로 13일 출국했다. 16일 하와이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83야드)에서 개막하는 롯데챔피언십은 올 시즌 체력 안배가 필요한 김효주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다.

김효주는 지난주 한국 대회 도중 기자회견에서 "체력을 관리하는 요령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거 같다"며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자 미셸 위(26)에 4타 뒤진 4위에 올랐다. 김효주가 대회 개막 때까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다.

시즌 초반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는 한국여자골프군단은 박인비(27·KB금융그룹),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장하나(23·비씨카드), 김세영(22·미래에셋), 최나연(28·SK텔레콤) 등 우승 후보들이 총출동한다.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2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출전하지 않는다.

/김민준기자

# 강정호 8회말 대타 출격 2루수 땅볼

## 추신수 3경기 만에 선발 무안타

메이저리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대타로 경기에 출전해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개막전 8회말 2사 1루에서 6번 타자 토니 왓슨을 대신해 타석에 섰다.

디트로이트의 세 번째 투수 이안 크롤을 상대한 강정호는 시속 153㎞의 3구째 패스트볼에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공은 2루수 앞으로 흘렀다.

9회초 수비 때 투수 마크 멜란슨과 교체돼 글러브는 끼지 않았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25에서 0.111(9타수 1안타)로 소폭 떨어졌다.

피츠버그는 선발 투수 게릿 콜의 6이닝 1실점 역투와 7회말 페드로 알바레스와 코리 하트의 솔로포가 터지며 디트로이트를 5-4로 꺾었다.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지만 안타를 치지 못했다. 추신수는 이날 LA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 3개로 물러났다. 시즌 타율은 0.214에서 0.167(18타수 3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3-6으로 역전패해 2연패를 당했다.

/정민준기자

# A fog cannot be dispelled with a fan

<부채로 안개를 걷을 수 없다 · 혼자 힘으로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시사 English

지난 8일 아침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직원은 비상식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근길 배포 중이던 메트로신문을 강탈해 도주한 겁니다.

8일자 메트로신문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3년전부터 인건비 절감책을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는 기사가 1면을 장식했습니다. 출근길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이 메트로신문을 집어들고 읽어볼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을 강탈해 도주한 이마트 홍보팀 직원의 행태는 오히려 내부 노조 반발에 불을 지폈습니다.

직원들의 눈을 가리고자 한 안일한 행위가 되레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근처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출구에서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과 메트로신문 직원 등이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직원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곧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A fog cannot be dispelled with a fan'이라는 속담입니다. 직역하면 '부채로 안개를 걷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어민들은 '혼자 힘으로 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속담은 원래 일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11년 한 러시아인 선장의 회고록을 통해 서구사회에 소개되었습니다.

영어로 된 번역된 때는 1818년입니다. 바실리 골로브닌(Vasily Golovnin) 선장은 당시 일본에 2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중에 일본인 통역이 보낸 편지에서 '부채로 안개를 걷을 수 없다'는 일본 속담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해안이 자주 안개에 덮이기때문에 일본인들은 여름엔 부채를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일본에서 유래된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서기기자 ***daun2018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3 |   |   | 8 |   | 1 | 7 |
|   |   |   |   |   |   | 8 |   |   |
| 5 |   |   |   |   | 9 |   | 3 | 4 |
| 4 |   |   |   |   | 3 | 6 |   |   |
| 6 |   |   | 9 | 7 | 4 |   |   | 5 |
|   |   | 2 | 8 |   |   |   |   | 1 |
| 8 | 4 |   | 7 |   |   |   |   | 3 |
|   |   | 5 |   |   |   |   |   |   |
| 2 | 3 |   | 8 |   |   | 7 |   |   |

|   |   |   |   |   |   |   |   |   |
|---|---|---|---|---|---|---|---|---|
|   |   | 9 |   | 5 |   | 3 |   | 7 |
| 2 |   |   |   | 7 | 6 | 5 | 1 |   |
| 7 |   |   | 1 |   |   |   |   | 2 |
|   | 8 |   |   |   |   |   |   |   |
|   |   | 4 |   | 1 |   | 9 |   |   |
|   |   |   |   |   |   |   | 6 |   |
| 4 |   |   |   |   | 1 |   |   | 8 |
|   | 2 | 8 | 7 | 3 |   |   |   | 5 |
| 9 |   | 1 |   | 8 |   | 4 |   |   |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펜사 스도쿠 트레이닝 (재미 고든 스티크 출고 지음)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업무 불만족 중 동업제의 … 이직해야 할까요
## 섣불리 이동하면 상황 더 그르칠 수 있어

정보가 69년 5월 13일 음력 인시

**Q** 안녕하세요? 이직문제로 고민입니다. 69년 음력 5월 13일 인시 생입니다. 어쩌게 마군부대에 주방보조로 일사한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조금 연락은 없고 일이 적성에도 안 맞고 고단해요. 그러던 중 케이터링 사업을 하는 친구가 동업 제의를 해 와서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A** 모든 만물에는 원형이정의 이론이 적용됩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보통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되는 사물의 근본원리를 말합니다. 원(元)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夏)이며 이(利)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秋)에, 정(貞)은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冬)에 해당됩니다. 원형이정은 각각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뜻하기도 하는데 전통원시 사주글자의 본래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주구조는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산시의 정도나 계곡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적한 기운이 감돌고 현실성이 부족하여 이상향을 꿈꾸며 재물문제를 야기해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편인격(偏印格)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비교적 섬세하며 예민하여 변동할줄 모르며 지구력이 떨어져서 이직 운이다 동업 운이 크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섣불리 이동하는 것은 나의 상황을 그르칠 수 있으니 현재 위치에서 안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동업을 하실 때는 상대방과 궁합이 맞아야 상부상조가 할 수 있겠으나 말리는 데도 하시겠다면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시고 정확한 업무분담표를 만들어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 분담과 환원을 정확히 기록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겠지요.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이니 케이터링의 업체들의 현황과 제출관계 예측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고 지원을 받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절차 없이 섣불리 동업이나 이직을 하면 실패하게 되어 현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하여 무기력해지면서 신경에 병이 들면 치유하기 어렵고 이중삼중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안에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4월 15일 (음 2월 27일) 사주스타 www.sajustar.com 060-700-8400

**쥐** 48년생 어려움을 순조로이 헤쳐 나가는 운세입니다. 60년생 뜻사한에 배우는 맛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유의하세요. 84년생 원하는 회사나 대기업에 취직될 운이 있습니다.

**소** 49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길합니다. 61년생 의술은 고려하셔야 좋겠습니다. 73년생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습니다. 85년생 욕심을 부리면 매사를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모든 억이 사라지는 운입니다. 62년생 갈등이 깊던 관계가 풀립니다. 74년생 대화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반석위로의 서게 됩니다. 86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입니다.

**토끼** 51년생 매사가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주위에 끈기를 들어가며 때를 기다리세요. 64년생 생각과 통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76년생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세요. 88년생 건강상에 흉신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뱀**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일이 생겨 훈훈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이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 54년생 시비나 구설을 조심하세요. 66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은 없습니다. 78년생 술자리를 피하세요. 90년생 쉬운 듯하나 중도에 장애가 많으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양** 55년생 지략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곧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 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원숭이** 56년생 분명히 소작은 어려워 지치게 됩니다. 68년생 동쪽방향이 길합니다.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좋습니다. 92년생 어려움이 닥쳐오나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닭** 57년생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69년생 흐릿한 것을 조심하세요. 81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93년생 만족감에 우유자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 58년생 소중한 물건을 잃게 됩니다. 70년생 노력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82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주변사람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직무유기' 남대문경찰서장 등 4명 피소

## '신세계 이마트 신문 탈취범' 조사없이 풀어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붙잡아 인계한 이마트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면해버린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이들을 지휘한 남대문파출소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 4명이 직무 유기 혐의로 피고소됐다.

메트로신문사(대표이사 김종학)는 14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과 오점석 남대문파출소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 중구청 관할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등 7~8대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메트로신문사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천고의 김재헌 대표변호사와 이성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관련 소장과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고소장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오전 8시경 회현역 7번 출구에서 특수강도 등의 현행범을 인도받아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현행범을 지체없이 조사하고 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고, 오점석 남대문파출소장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을 통하여 특수강도 피의자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메트로신문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최아무개씨 등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박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도주했다.

이에 도우미 최씨의 인근에 있던 일반 시민 고아무개(75)씨가 실랑이 끝에 최씨는 붙잡았으나 나머지 일명은 신문 뭉치를 든채 택시를 타고 도망쳐버렸다.

도우미 최씨는 소란 와중에 112에 신고를 했고 잠시후 도착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용의자 최씨를 인계했지만 최씨가 신세계 직원이라고 신원을 밝힌 직후 윗선에 전화 보고를 한 뒤 최씨를 그대로 방면해 주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렸다.

도우미 최씨 등에 따르면 용의자 최씨는 처음에는 신문사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이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메트로측 관계자가 경찰들에게 신문탈취 사실을 밝혔고, 현장 상황을 목격한 주변 상인 등 관계자들의 녹취록 등을 살펴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당연히 신세계 직원을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 입건하고 정식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메트로신문측에 "고소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메트로신문 강세준 편집국장은 "애초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드러난 행태를 봤을 때 경찰과 신세계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을 고소를 해도 결국 관할인 남대문서가 조사를 할텐데 자칫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일단 유보하고 공권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현규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신문 강탈' 신세계 – 목격자 사건 경위 엇갈려

메트로신문이 신세계 이마트의 본지 신문 강탈 사건<본지 4월 9일자 23면 참조>을 묵인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 측 해명과 목격자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사건 당일 신세계 홍보팀 주임이 지하철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사진이 1면에 게재돼 있어 팀에 보고하기 위해 10여부를 가져오려고 한 것"이라며 "직원 2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무가지 40부를 탈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일부 언론에 밝혔다.

반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 목격자들은 젊은 남자 2명이 신문을 뭉치 채 강탈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 신세계 측이 밝히는 사건의 개요**

신세계 이마트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신문을 강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지난 9일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당일 홍보팀 주임이 지하철에서 정용진 부회장의 사진이 1면에 게재돼 있기에 팀에 보고하기 위해 10여부를 가져간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이마트 측은 신문 배포 도우미와 홍보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인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별다른 실랑이가 없었다가 배포 도우미가 갑자기 직원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은 것"이라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저희 입장과 사실 관계가 다르니 메트로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또 "현데 처음부터 직원 두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니다. 홍보실 다른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목격해 다가갔으나 실랑이가 다시 붙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 직원이 회사로 돌려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홍보팀 직원의 옷을 붙들고 늘어져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쌍방 폭행이라고 보고 합의가 끝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 인근 상가 근무자들이 증언한 사건의 개요**

–기자 사건을 목격했나?

–목격자 A씨 사건은 확실히 봤다. 분명 2명인 것을 확실히 봤다.

–기자 어떤 상황이었나?

목격자 B씨 젊은 남자들이 신문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배포 도우미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신문이 묶여 있는 한 뭉치를 들고 택시를 타고 도망갔다. 다른 1명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붙잡혀 있었다. 처음부터 젊은 남자 2명이 일을 저질렀다.

–기자 직접 그 사건을 봤나?

–B씨 그렇다. 나는 택시에 탄 사람이 (다른 한사람에게) 빨리 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근데 혼자 타고 가버렸다.

–기자 몇부를 가지고 갔나?

–A씨 신문 한 뭉치를 가지고 갔다. 확실히 5부 정도는 아니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비 내리는 단원고 희생 학생 안치 하늘공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오전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하늘공원에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성완종 '비밀장부' 있다

### 금품전달 내용 기록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기록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이 장부의 실체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치권 한 인사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측근 한 명을 대동해 과거 금품을 건넨 인물이나 금품 전달에 동원된 사람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이 금품거래 정황을 되새겨 기록하기 위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모(52)씨를 꼽았다.

언론인 출신인 윤씨는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냈다.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 후보였던 홍 전 지사의 경선캠프에 참가했다.

이 정치권 인사는 "성 전 회장이 당시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부사장인 한모씨에게 '돈을 찾아서 윤씨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며 "윤씨는 이를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성 전 회장은 사망 이틀 전인 7일에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몇 시에 전달했느냐' 등을 상세히 물었고 측근에게 이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지사는 금품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 /이홍원 기자 [illegible]

## '대포폰 근절' 개통시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본청에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면 진위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 기재내용을 입력하면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증 자료와 대조해 위조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도 이번 시스템에 참여해 주민등록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위를 가려낸다.

이동사 사업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illegible]